

I. 제목

에스더는 주인공의 바사식 이름인 '에스테르' 에서 유래했다. 70 인경이나 벌게이트역의 제목도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스테르 를 그대로 사용했다.

II. 저자와 저작 연대

1) 저자: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 (10:2) 라는 이방 궁중 역사 자료가 참조된 사실을 감안하여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르도개가 저술한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모르도개가 3 인칭으로 불리워서 수용하기 어렵다. 혹은 포로귀환 이후 대제사장 요아김 (느 12:10)을 저자로 생각하나 왕실자료를 참조하기 힘들었을 것임으로 아니다. 에스라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에스라의 주제와 본서의 주제의 차이, 단어나 문체, 내용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바사 말과 관습에 익숙해 있는 점으로 보아 바사에 살았던 인물이며 어려서부터 그 사건들을 목격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가 이 책의 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저작연대

사건이 일어난 때와 멀리 앞던 시간에 기록되었으리라고 본다. 10:2-3 은 모르도개의 시기인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시대가 끝났음이 (주전 485-464 년) 암시되고, 역사상 유명한 수산궁 화재사건 (주전 435 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보아서 주전 464-436 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III. 에스더서의 기본 구성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기원이 극적인 상황 묘사로 기술된 역사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유대인이 처한 중대 위기 (1-4 장) 과 유대인의 승리와 부림절 (5-10 장) 으로 나눈다. 유대인의 위기는 에스더의 왕후 간택 (1-2 장) 배경과 하만의 음모 (2-4 장) 로 선민에 대한 세상 권력의 협박을 보여준다. 두번째 부분은 하만의 죽음과 (5-7 장) 승리의 기념 축하 (8-10 장)로 하나님의 보호에 의한 선민의 구원을 보여준다. 장소는 바사 특별히 수산궁이고 주후 483-473 년의 11 년간의 역사를 보여준다.

IV. 본서의 목적 :

- 1)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
- 2) 많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포로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아직

바사 도처에는 모르드개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었다. 이때 하만은 온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셨다.

** 본서의 특징:

- 1)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시종일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이 책의 사건전개가 소설적인 표현으로 되어있고, 드라마처럼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 3)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맞으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기억한다.

** 에스더의 종교적 성격과 도덕적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어떠한 불신자도 이 책을 썼을 가능성이 없다. 어떠한 신자도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저자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로 구원이 제시되어 있다.
- (2) 에스더는 유대인의 국가적 절기 중의 중요한 절기 부림절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
- (3) 한 중요한 도덕적 교훈이 이야기에 가득차 있다. 하만의 짧은 영화의 날이 쓰러짐을 통하여 땅의 권세와 부귀의 덧없음이 뚜렷하게 증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신다.
- (4) 하나님의 섭리가 인상깊게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인간이었지만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V. 에스더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섭리 (providence)
- 2) 핵심 절 : 4:16; 9:21-22
- 3) 핵심 장 : 8 장

VI. 에스더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언이나 묘사도 없다. 그러나 본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기적적인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왕후 이면서 백성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4:16)” 란 일사각오로 나간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도 예표한다.

모르도개의 행적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발견한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만을 물리치고 영광을 차지함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또한 본서에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도 나타난다. ‘그 악한 하만’ 이란 히브리 단어는 666 으로 계산된다. 하만을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바사의 실권자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요구하며,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기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한다. 절하지 않는 모르도개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다. 악을 행하던 하만은 결국 큰 힘을 가지고 잠시 번영하지만 곧 망하게 된다. 하만은 자신 뿐 아니라 추종자들을 모두 멸망에 이르게 한다.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이다.